

‘반딧불 농산물’ 상인 마음 흠치다

무주, 도매시장 공판장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제 값 받는 농정’ 실현 성공

무주군의 ‘제 값 받는 농정’ 실현을 위한 기원행이 시작됐다. 무주군은 6일까지 전국의 도매시장 공판장 13곳과 농가소득 향상 및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무주군(무주농협·구천동농협)과 도매시장 공판장 간에 진행되는 것으로, 첫날인 4일에는 서울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중앙청과 경기도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협대진공판장, 광주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호남청과,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주원협(공)이 만나 협약서에 서명했다.

무주군(무주농협·구천동농협)은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과 안정적인 출하기반을 마련하고 각 공판장에서는 무주군 농산물 출하물량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취급기반을 확보, 무주군 생산 농산물의 평균가격 보장과 농가수취 확대, 그리고 공판장별 출하물량의 최소 10%를 정가·수익매매하기로 했으며 또 양 기관은 합의에 의한 평가 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해 출하와 이행실태 등을 평가하는 등 상생을



무주군은 6일까지 전국의 도매시장 공판장 13곳과 농가소득 향상 및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제 값 받는 농정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높여준다는 우리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첫 단추라 뜻깊다”라며 “우리 군은 든든한 판매처를 얻었고 공판장에서는 맛도, 품질도 으뜸인 반딧불 농산물을 다른 공판장들보다도 우선 확보를 하게 된 것인 만큼 1만여 우리 농가들과 각 공판장에도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각 공판장 대표들은 “상품가치가 높은 무주 반딧불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대열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다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협약식을 지켜본 무주군 농업인들은 “땀 흘려 농사 지은 농산물이 전국으로 제 값을 받고 실려 나간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뛰고 든든하다”라며 “앞으로 상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반딧불 농산물 가져가고 싶다는 공판장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농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5일에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동화청과를 비롯한 4곳, 6일에는 서울 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주)강서청과를 비롯한 4곳의 공판장들과도 협약을 이어갈 계획이 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현대 선수단 무주군 방문

반딧불축제서 팬 사인회 이동국·김진수·홍정수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하는 전북현대모터스(이하 전북현대) 축구선수단 팬 사인회가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 무주군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우천시 반딧불축제 주무대)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전북현대에서 2018년 K리그 선두, K리그 클래식 우승 5회,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 FA컵 우승 3회를 이끌어 온 이동국, 김진수, 홍정수 선수가 참여하며 반딧불축제를 찾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 사인회에 앞서 선수들은 무주군 관내 (무주, 설천, 안성)고등학교들이 진행하는 반딧불축제 반디라디오 사랑방에 출연해 △반딧불 축제 참가 소감과 △축구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에게 전하는 당부, 또 △선수로서 자신만의 노하우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으며 팬들과 만날 계획이다.

학생들은 “TV나 경기장 멀리서만 보던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겠다 진짜 기대가 된다”라며 “선수들을 만나면 평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기념사진도 찍고 싶다”라고 전했다.

한편, 반디라디오 사랑방은 반딧불축제 기간(9.2.~9.) 축제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와 지역의 이야기, 그리고 축제 이야기들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관내 고등학교들과 주민, 전문 MC가 함께 진행하며 반딧불축제장에 혼란함을 전하고 있다.

그동안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 반디탐대대 김영호 씨가 게스트로 초대돼 이야기를 나눴으며 9일까지는 무주군민회장 수상자 배재숙 할아버지, 재경향우회 회원들, 전북현대 선수들, 그리고 반딧불축제제위원회 이성만 위원장 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보건소는 2018년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보건소와 유관기관, 검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하반기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진안보건소, 국가 암검진 홍보 유관·검진기관 협력체계 마련

진안군보건소(소장 성용경)는 2018년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보건(지)소와 유관기관, 검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하반기 집중 홍보에 나섰다.

보건소는 수검률 향상을 위해 9월 중 건강검진기관인 진안군의료원, 마이외과정형외과, 우리가정의학과와 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축제 및 행사를 방문해 국가 암 조기검진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2018년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지

역 9만4,000원, 직장 8만9,000원)인 자다.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으로 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2년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고위험군 대상으로 연2회(상·하반기 각1회),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으로 해마다 대변으로 분변잠혈 검사를 받으면 된다.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연간 최대 200만원의 의료비가 3년간 지원되며 개인적인 검진을 통한 암 진단 시에는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가 암 조기 발견·치료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군의의회 제248회 임시회 군정질문 펼쳐

김광수·정옥주·박관순 등 관광·아동 교육·아직 질의

진안군의의회(의장 신갑수)는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항로 군수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3일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광수 의원은 진안군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기위박물관과 명인명품관 등 관광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입장료 현실화와 체험상품 개발 등을 통한 수익창출 및 자립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두 번째 질의자인 정옥주 의원은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위한 유아교육지원 현실화 방안과 관련해 유아들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사고 등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 그리고 어린이집 교육 서비스의 질제고 방안에 대해 물었다.

세 번째 질의자인 박관순 의원은 진안홍삼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4년 근 인삼 수확량이 6년근 인삼보다 많은 이유와 6년근 인삼이 미 활성인 이유 및 활성화 방안, 인삼 객도사업의 과감한 지원을 통한 토질개선 대책, 타 지역 토양관리 기술 도입 사례 및 계획과 홍삼과 더불어 경쟁력을 제고시킬 작목 발굴 계획에 대해서 물었다.

네 번째 질의자인 이우규 의원은 가족분노 처리방법과 장기적 대책과 관련해 법에 명시된 분노처리방법과 진안군에서 배출되는 축종별 분뇨량 및 공공처리시설·민간처리시설·

개발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분뇨량, 분뇨처리 및 관리방법, 분뇨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으로 조준열 의원은 퇴비공장 등 축산시설 악취발생과 관련해 마렵면과 성수면 퇴비공장과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근본적인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물었다.

신갑수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진안군의의회에서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며 “이번 임시회가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지역 매아리

달빛내륙철도사업 국회포럼 개최

장수군을 포함한 10개 지자체, 해당 선거구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학계전문가, 언론사 등이 참여한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열었다.

달빛내륙철도사업은 광주에서 대구까지 191km를 고속철도로 추진예정이며 총사업비 6조 3,087억원을 국비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개통될 경우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내 주행이 가능하고 경유지로는 광주광역시,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 함양, 거창, 함천, 고령, 대구광역시 10개 지자체가 포함된다.

이번 포럼은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가 남부 신강계권 형성을 위한 달빛내륙철도 구상이라는 주제로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토론 좌장은 최안석 광주대학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광주~대구간 동서지역을 아우르는 경유지가 포함됨만큼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청중들로부터 패널들에게 다양하고 점예한 질문들이 쏟아지는 등 시종일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장수군은 이번 포럼을 통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피력했다고 보고 향후에도 사업발명을 위해 10개 경유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장수군은 4일 장수읍 회진 교차로 일원에서 장수군청, 장수경찰서, 장수교육지원청·초등학교 및 녹색어머니회, 안전보안관 등 500여명이 참석한 제270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어린이 교통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혁기를 맞아 교통문화 질서 의식을 향상시키고,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했으며, 특히 운전자의 속도줄이기, 정지선지키기 등 교통법규 준수와 어린이들의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등 안전보행 3원칙을 집중 홍보 했다.

또한, 장수군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유해환경정화,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정비등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관내 학교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4일까지 학교주변 위생요인 4대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해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수군 장수 군수는 “이번 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